

1956년 창간된 月刊『考試界』가 2018년 6월호로서 창간 62주년(통권 736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간 이후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묵묵히 오늘날까지 63여년 동안 전통 법률전문잡지로서의 본분을 지켜오고 있는 것은 수많은 독자제현과 양질의 많은 글을 주셨던 여러 필자분들의 큰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月刊『考試界』임직원들은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50이면 知天命이고, 60은 耳順”이라 합니다.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60세가 되면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月刊『考試界』가 올해로 인간의 나이로 계산하면 63세가 되었으니 사람으로 치면 지혜를 얻어 하늘의 뜻을 알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1998년도의 IMF사태가 온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출판계와 잡지계는 그 사정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특히 月刊『考試界』와 같은 전문잡지는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어, 현실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시사물 잡지나 오락물 잡지에 비하여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전통 법률

전문잡지를 63여년 동안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축하받고 격려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 처음으로 로스쿨 도입 10년 만에야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한대로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순위에서 각 로스쿨들은 입장에 따라 전부들 불만들입니다. 하위권 지방의 로스쿨들은 바닥권 서열에 전전 궁궁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대 로스쿨과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이 1~3위를 차지하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의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높이는 데에 혈안이라는 지적도 들리고 있습니다. 합격률을 높일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 점수와 대학 학부성적은 물론 나이, 학업단절기간, 휴연여부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입학전형으로 참고한다고들 합니다. 바른 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31세 이하 비율은 서울대 로스쿨은 99.3%, 고려대 로스쿨은 100%, 연세대 로스쿨은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 정 상 훈

- 月刊『考試界』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미디어북 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 한국잡지협회 정관개정위원장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교육지원재단 지원의장



전면적인 사시제도로의 회귀는 아니더라도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로스쿨 재학생들, 돈이 없어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 5회 이상 변호사시험에 낙방하여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로스쿨생들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정부의 교육당국과 국회 및 법조계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0일로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출범 당시 모 방송사에서 새 정부의 개혁과제로 가장 시급한 것을 여론을 조사한 결과 검찰개혁이 으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검사독직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잇달아 겪으며 법조계 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범위를 두고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경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를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공수처 신설도 입법과정에서 담보상태에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파행이 지속되면서 법안통과는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을 둘러싼 혼란도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로스쿨이 법조인양성제도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형평성 있는 법조인양성제도의 수립은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3여년간 月刊『考試界』가 창간 이래 애독자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량을 키워내는데 일조하겠다는 月刊『考試界』의 창간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月刊『考試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